

# 해남 '2020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력

청장년 취·창업 지원...400명 신규일자리 창출  
민간기업 연계·역량강화...스타유튜버 등 양성

해남군이 올해 4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을 목표로 한 '2020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핀다.  
해남군 2020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기업 연계와 취·창업 지원, 양성교육 훈련, 직접고용 일자리 사업 등이 연

중 실시될 예정이다.  
민간기업 연계는 마을사업장·비영리단체와 청년을 매칭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한다.  
내일·마을로 사업 참여자들,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청년농수산물유통활동가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이 펼쳐진다.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기업과 청년에게 주어지는 근무장려금도 89명에게 지원한다.  
39세 이하 청년 취·창업지원 40명, 청년스타유튜버 양성 10명, 도내 향토자원 발굴을 통한 청년창업 3명, 청년일자리 카페 운영을 통한 취업 컨설팅 80명 등 관련 사업도 운영된다.  
미취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산림교육전문가와 온라인 마케팅을 양성해 모두 30명에 대한 교육·취창업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돼 큰 호응을 얻었던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은 만 50세

부터 70세 미만까지 18명에 대한 직접고용 일자리를 마련한다.  
해남형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238명과 노인 일자리 1,886명, 장애인 일자리 44명 등 연령별·계층별 일자리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13일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돼야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으로 지역 내 인구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다"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군민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 흑산도항, 국가안보·영해관리 거점 개발

454억 투입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조성

신안군 흑산도항이 국가안보와 영해관리 핵심 거점 항만으로 개발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3일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조성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에 따라 흑산도항은 2014년 9월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다.  
계속 사업으로 2023년 1월까지 총사업비 454억원을 추가 투입해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360m를 조성한다. 소형어선 정박을 위한 파제제 및 선착장 200m도 건설한다.  
올해는 50억원을 들여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조성을 위한 기반개량에 나선다.

주민은 물론 흑산도를 찾는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부잔교 1개소(2함)도 추가로 설치한다.  
흑산도항은 60년대 근해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들의 태풍 피해지이자 파시가 유명했다.  
최근에는 서남해권의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해양수산부에서 1,260억을 투입해 방파제 570m, 집안시설 360m, 물양장 770m 등을 확보했다.  
장기포 목표해수청장은 "해경·어업지도선 부두를 확충해 서남해권 영해관리 전진기지의 역할이 기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강진 군동면 신기마을에서 '정월장'을 만들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신기마을 '정월장' 아시나요

30년 전통방식 구수한 장류 생산 인기몰이  
지역 대표 특산물 주문 쇄도...비법 문의도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강진의 전통장류가 주목받고 있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동면 용소리 신기마을은 30년 넘게 전통방식으로 장을 만들고 있다. 양질의 토양과 깨끗한 물로 생산된 강진의 콩을 전량 구매해 전비빔이 부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매주를 쑤어 자연 건조시키고, 정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을 담근다.  
매주를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부터 시작되는 전통 장 담그기는 5년 이상 숙성된 천일염을 넣어 간수를 만들고 달걀이 동동 뜰 정도로 농도를 맞춰 매주를 50일간 숙성시킨다. 이때 1,000도 이상에서 구워 낸 전통 용기를 장독으로 사용해 외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통기성과 방부성을 높여 더욱 깊고 구수한 전통장맛을 완성한다.  
강진전통장류농조합법인 최진호 대표는 수십 년 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위생적인 생산

유통을 위해 현대식 공정을 도입해 전통장류를 생산하고 있다. 깊은 맛과 풍미를 지닌 전통장류를 깨끗하게 대량으로 생산해 강진의 정맛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강진 전통장류는 마을의 주요 소득원을 넘어 강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장 선물세트 주문이 쇄도하는 한편 전통장 비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강진군은 전통장류를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의 하나로 선정하고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집중육성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 강진사랑상품권 8% 특별할인 설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강진군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강진사랑상품권을 8% 특별할인 판매한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존 5%이던 할인율을 3% 상향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으로 신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및 관내 농·축협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하다.  
또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식당, 마트, 주유소, 병원, 약국 등 약 660여곳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군 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포인트 일부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다. 더불어 각종 보조금 및 행사시 강진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2018년 대비 35억원이 증가한 99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유통시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13일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강진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행사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강진사랑상품권 소비자 및 소상공인 모두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자 편의 제공 및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식 상품권을 오는 4월 중 발행할 예정이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군이 매주 화요일 업무시간 30분전 친절 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등 올해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에 주력한다. /신안군 제공

## "민원인 감동 서비스 제공에 최선"

신안 매주 화요일 행복민원 실천 다짐 눈길

신안군이 지역민들을 위한 행복민원 서비스 실천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친절을 바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업무시간 30분전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친절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다.  
친절 교육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응대 요령과 민원 봉사 자세 등 자체교육으로 실시한다.  
또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회 방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친절이 몸에 배도록 친절 실천 다짐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열어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맞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순 민원봉사과장은 "밝은 표정과 겸손한 태도로 민원인들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발 다가가는 열린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클릭! 고향 속으로



### 호텔 락희, 목포시에 나눔사업비 기탁

(주)호텔 락희(회장 현동배)는 최근 목포시를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사업비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저소득층 이웃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한 가족사진 촬영'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동배 회장은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영원히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눔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호텔 락희는 대전, 청주, 광양에 호텔 락희를 준공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다. 현재 목포 상락동 1가 옛)남일극장 부지에 513실 규모의 목포점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박승경 기자



### 영암 학산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영암군 학산면은 최근 면사무소에서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발대식에는 12월까지 추진할 지역 사회 환경개선분야 56명, 경로당 환경개선 분야 66명, 정주차분야 12명, 경로식당분야 2명 등 총 136명의 참여자가 참석해 사업 개선편 등을 논의했다.  
김명선 면장은 "1월부터 시작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참여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노인일자리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무안 캠프벨리, 승달장학금 기탁

무안군은 13일 "몽탄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캠프벨리가 최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1,000만원을 승달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캠프벨리는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기탁한 장학금은 지역 학생들이 앞으로 무안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무안 승달장학회는 지난 1994년 설립돼 군비 출연금, 기부금 등 108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2,364명에게 19억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